

해방 (로마서 7:21-8:2)

세계복음화를 두고 중요한 단어가 해방이다. 우리가 아직도 잡혀 있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에서 해방이다. 우리를 잡고 있는 모든 것은 원죄에서 나왔다. 그래서 잡혀 있는 모든 것은 거기서 다 나왔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해방이다. 더 나아가서 정복이다.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다. 특별히 어려움 있는 분들은 말씀 받고 응답받기 바란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하시는 일이 없다. 그 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바울이 고백했다. 진짜 답나기 바란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눈 열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눈 열리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 그대로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도 말씀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된다. 반드시 흑암 세력 무너지게 된다. 선지자가 시대마다 나타났는데 한 일은 하나이다. 하나님에게 말씀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하나님도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 저주를 받은 아담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한 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것이다. 사백년동안 예수님 오실때까지 선지자라고는 한명도 없었다. 이 때 생산된 것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다.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외울 정도였지만 예수님을 죽였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이정도로 무서운 것이다. 어디 다른 곳을 가는데, 다른 곳을 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말씀이 없으니까.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없으니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두가지가 딱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이 두가지를 기준으로 운행하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대로 살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말도 많고 싸움도 많이 일어난다. 살인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자살도 하고 그런다. 그런데 이것을 통틀어서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러면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문제 없으면 이런저런 소리 있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 것이다. 여기에 들어온 자는 문제 해결된다. 여기에 들어오면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시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도 있다. 이것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조금만 여기에 대해 오직이 되면 어느 날 문제 정복하게 된다. 응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정복하게 된다. 정복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런 초월한 삶을 살기 바란다. 땅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초월이다. 이것이 언약 안에 약속되어 있는데,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요한복음 19:30절 잘 안다.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뭘 이루셨냐면 이 언약을 이루셨다. 그 어떤 것에도 잡히지 않고 초월하신다. 이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할 것도 없고 다시 할 이유도 없는 완성된 언약을 가지고 있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보좌의 축복이 나온다. 어디서 보좌의 축복을 얻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냥 응답이 아니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다. 그냥 동네 전도가 아니라 237 세계에 빛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생명 주셨다. 그 세가지가 있다. 그거 누리는 것이다. 어디서? 이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답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만들어지지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야 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 넣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에덴동산을 주셨다. 이것이 본래 우리의 축복이고 권세이고 신분이다. 그런데 이게 깨져버리고 구석기 시대가 되었다. 그것이 언약이 깨진 것이다. 그런데 이 언약을 회복시켜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무후무한 응답 세가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삼시대,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

스도를 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오는 것이다. 진짜 생각해보면 놀랄일이 다. 인생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계속 발전하게 되어 있다. 자꾸만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 진짜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인생에 성취가 되고 내 인생이 작음이 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사는 것이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답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24, 25, 영원 나온다. 어디 다른 곳에서 24를 찾겠는가? 이 안에 다 들어 있다. 24, 25, 영원. 그리스도 밖에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해도 그리스도 때문에 뜯다면 말 다한 것 아닌가? 발견되지고 진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위하여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사단은 무너진다.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문 열리게 되어 있다. 답은 나왔다. 너무 간단하다. 이제 남은 것은 하면 된다. 조금 참아야 한다. 그 다음날 바로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참고 다른데 갈 필요 없다. 답은 이거 뿐이니까. 다른데 갈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면 그리스도이다.

1. 해방

해방있기를 바란다. 오늘 말씀은 사도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다. 7장 전체를 읽어 보면 자신이 너무나 원하지 않는데, 그것을 자꾸 한다고 써놨다. 이러면서 7장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 보면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하여 결론적인 것은 내가 왜 이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날 깨달은 것이 17절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라고 이야기 했다. 나는 싫은데, 미운데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사단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내가 책임전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죄이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 죄는 나와 하나님과 나와 사단의 관계 속에서 말하면 사단이라는 것이다. 나는 싫은데 자꾸 하는 것이다. 이 원리는 창세기 3장에도 그대로 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을 죽여야 한다. 그런데 뱀을 죽였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우리도 이렇게 봐야 한다. 내가 죄 지은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죄를 아무리 지어도 내가 아니라 사단이라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인은 사단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회개하고 매일 계속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사단을 죽였겠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가? 아무리 아담이 회개한다고 해서 아담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왜냐면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속았기 때문에. 그는 죄의 시작이었지만 원인은 사단이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완전하다. 돌아볼 것 없고 고칠 것도 없다. 인간의 죄의 문제, 저주에 대해서 완전한 답은 원인인 죄, 뱀을 죽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담을 죽이면 완전 해결이 아닌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서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나는 선을 행하려 하는데 속에 악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23절에는 내 안에서 한 다른 법이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 잡는다는 것이다. 사단이, 죄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눈에 보인다는 것이다. 뻔히 아는데도 그렇게 따라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고백하였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해도 나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론 이야기 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내가 이런 인간이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다. 그도 인간이므로 언약한 것이 있는 것이다. 싫은데 죄의 법을 섬기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다는 것이다. 뻔히 알면서도 따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탄식하는 것이다. 오호라.. 아무리 해도 절대 안된다는 것이다. 결론 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안되므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한 법을 정하셨다. 그냥 놔두어서는 구원이 안되니 법을 하나 정했는데, 그것이 로마서 8장 1-2절이다. 1절 시작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 이것은 인간은 스스로는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 가지를 결정했다.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 용서하고 정죄하지 않기로 정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안하고는 아무도 구원이 안되는 것이다. 근본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왜일인지, 이렇게 해주셨다.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건지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 원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2절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생명과 성령은 같은 것이다. 성령님 들어오면 그 때 우리에게 생명 들어온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 들어오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답은 딱 하나 뿐이다. 생명을 얻는 답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고 완전한 법이다. 이 법칙으로 죄와 사망, 저주에 잡혀 있는 자기 백성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 순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죄의 법으로는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방시켜주셨다. 이제는 그 해방되어 나온 그 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완전해방이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무슨 짓을 해도 다시는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해방이다.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죄를 지어도 지옥을 못 간다. 지옥을 가고 싶은 분에게는 슬픈 일이다. 아무리 해도, 죽어도 못 간다. 이것이 해방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님의 약속의 모든 것은 완전하다. 손 댈 것이 없다. 해방이라면 끝까지 무조건 해방이다. 죄를 아무리 지어도 해방이다. 다시 해방 안되는 일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원하셔서 결정하셨다. 그리고 선언한 것이 바로 해방이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다. 이 해방이 정말 어디로부터 해방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중에 해방이 나타난다. 어디로부터 해방인가? 영적인 문제로부터 해방이다. 경제의 문제로부터, 매일 싸우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이것을 각인하고 언약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이고 완성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면 완전 새로운 것처럼 된다. 왜 그런가?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기록된 말씀이 살아 있다. 첫째 해방은 저주에서 해방이다.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 저주 없다는 선언이다. 저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안된다. 지옥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된다. 이런 영적인 것 뿐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이다. 육신적으로도 절대 저주 가운데 안들어간다. 언약 잡으면, 나오게 되어 있고, 돈을 통해 저주하는 그 저주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언약 잡아야 한다. 저주에서 해방이다. 영적 육신적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다. 그것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언약되어야 하고 눈 열려야 하고 잡아야 한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고 근본이다. 말씀이 들어와 언약이 되고 잡는 것이다.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깨지는 것이다. 이것이 왕직이다. 나와 내 인생에서 사단의 머리는 반드시 깨진다. 이 저주, 음부의 권세는 내가 매일 죄를 지어도 절대로 역사 못한다. 내가 24시간 죄 가운데 있어도 절대 안된다. 하나님의 권세이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셨다. 끝내버렸다. 보통은 우리 목사들은 이런 말을 조심한다. 왜냐하면 혹시 오해할까봐. 우리는 오해할 분이 없을줄 알고 이야기 한다. 죄를 계속 지어도 괜찮다. 오늘부터 죄를 누리라. 그래도 절대로 이 저주가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이 무엇인가? 100프로고 완전이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죄를 묻지 않는다. 그것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다. 다 필요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야. 그것이 메시지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세 번째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 없다. 전에는 단절되었다. 단절된 그것 때문에 저주 왔는데,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오히려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 땅에서 24시간 함께 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다. 이것이 해방이다. 약속이고. 세상 끝날까지 이 약속은 하나님이 완전히 지키다. 아무도 못 막는다. 조건은 하나이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깊이 그리스도 잡으면 증거가 눈에 보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 정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이다. 이런 해방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확언하기 바란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것이 언약이 되어야 한다. 좀 어려움이 있다면 더욱더 확실하게 잡고 전쟁 붙어야 한다. 하나님은 영적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육신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딱 안 만난다. 영적 문제이고 사단인데. 그래서 다시 한번 계속 언약 잡고 계속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이다.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 바란다.

2. 세계 복음화

세계복음화도 언약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언약이다. 노력이나 헌신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세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내게 있으면 생각이 커지게 되어 있다. 세상에서 내 맘대로 제일 안되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 내 맘대로 되면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다. 24, 25, 다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세계복음화가 조금만 되어도 생각이 커진다. 생각이 커지면 귀도 커진다. 귀도 커지면 응답 커진다. 당연히 인생 커진다. 아주 세계복음화를 예사로 하게 된다. 아주 백배의 응답, 예사로 말한다. 샘의 근원.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생의 크기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은 항상 뱀의 머리를 깨게 되어 있다. 그리스도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뱀의 머리를 깨는 것이다. 뱀이 이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깨는 것이다. 사명도 그 권세가 있다.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이 끝나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아무도 손을 못댄다는 것이다. 사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해방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된다. 아무도 못 막는다. 그게 세계복음화이다. 그래서 이 일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세계복음화라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그 안에 권세가 있는 것이다. 방해하면 머리 깨진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인생을 크게 만들어주는 근본이다. 당연히 응답권세가 다 거기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요소중 가장 중요한 것이 세계 복음화이다. 이것 통하면 생각 커진다. 초월은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이다. 모세는 이것이 통한 사람이다.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인 가나안을 가는 것을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소원에서 마음이 통했다. 사도바울은 이 사명을 그 날 바로 받았다. 그 위에 일어난 것을 보면 유대인중에서 제자를 찾았다. 그날 받은 단어가 세단어이다.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이었다. 유대인중에서는 제자를 찾았다. 디모데.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 제자들이 있었다. 임금이라고 했다. 개인이 아니라 나라인 것이다. 한 나라 통째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 세계 복음화이다. 이게 언약으로 들어왔다. 이런 언약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났다. 세계복음화가 마음에 언약이 되니까. 우리도 이렇게 되어서 큰 인생 살기 바란다. 어짜피 살다가 죽는데 크게 살지, 공알만하게 살 이유가 없는 것이다. 크게 살아야 한다. 안되면 기도라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전에 오늘 말씀에 기준하면 먼저 내가 해방을 누리야 한다. 이것 개인적으로 매일 누리기 바란다. 고백하면 누리진다. 말씀을 고백하면 거기에 권세가 나타난다. 첫째는 내 마음에 있는 뱀의 머리가 박살난다. 자꾸 퍼져나간다. 계속 고백하고 누리면 응답 나타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성경의 기도응답의 원리를 보면 아주 본질적으로 뒤집는 것이다. 본래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셨다. 이것이 본래 기도응답의 원리였다.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해방이다. 그냥 응답이 아니라 해방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게 아니라 해방은 정복을 담고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 해방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응답받는다. 그리고 결국 정복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 바란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셨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심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정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